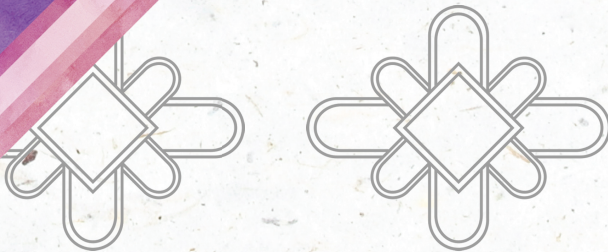


춤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활동지원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테마기획

2016 리우 패럴림픽,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인 터 뷰

춤으로 세상을 느끼다!
시각장애인 무용수 유창호 님

포커스

거스 히딩크 재단과 함께하는
인터뷰 현장을 소개합니다!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송편

04 | 시선집중 - 활동지원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팀장)

06 | 테마기획 - 2016 리우 패럴림픽,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08 | 인터뷰 - 춤으로 세상을 느끼다! 시각장애인 무용수 유창호 님

10 | 포커스 - 거스 히딩크 재단과 함께하는 인터뷰 현장을 소개합니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꼭숨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 김한봉(시각1급_경기도 광명시)

13 | 월드 리포트 -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페이스북' 사진!
- 미국 안구은행, 한국 시각장애인 위해 각막 공급에 적극 협조하기로

14 | 뉴스앨범 - 강원도의 바다를 느끼다, 수상레저!
- 안마창업훈련, 피부미용훈련 수료식 열려
- 제6회 시각장애인복지시설 직원연수 개최
-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색송편만들기!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9월 194호

발행일 2016년 9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옴니 02,867,1921 캘리 모노D

추석이 되면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는데요.

송편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1 4
2 5
3 6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ㅞ	ㅟ	ㅠ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쌍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줄임표(...)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가,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 지, 초, 쓰, 짜]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활동지원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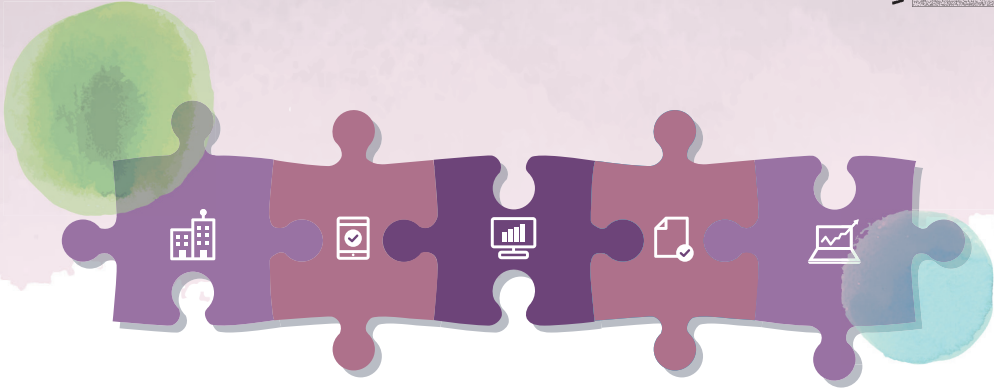
지난 7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활동지원 등급 하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시각장애인 300여명을 비롯하여 윤소하(제20대 정의당 국회의원)의원 및 각계각층의 장애인 대표들이 참가하여 2016년 상반기에 발생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대폭 등급 하락에 대한 문제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재심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다른 14개 장애유형에 비해 서비스 등급 하락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 시각장애인의 강력한 문제 제기 및 대책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재심사자 중 36.4%(187명, 2016년 1~5월 기준)의 등급이 하락했고, 이중 시각장애인 63명의 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표출되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도움을 받아 전국 단위로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서비스 등급하락률은 3.85%인 것에 비해 시각장애인은 이보다 약 2배가 더 높은 7.53%의 서비스의 등급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시·도의 경우 등급하락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급하락이 발생한 강서구가 포함된 서울시는 등급재심사자 1,244명 중 10.7%(129명)가 하락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시는 등급재심사자 214명 중 22.43%의 등급이 하락해 17개시·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전라남도도는 18.1%, 경기도 9.52%, 인천광역시 5.71% 등 8개 시·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등급 하락이 발생하였다.

그 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 퇴근은 물론 가사지원, 정보 확인 등을 이용하던 시각장애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이 날 대회에 참가하려는 1급 시각장애인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도 어렵고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역시 소진하여 스스로 외출이 불가능하여



대회에 참석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감각장애의 특성상 이동의 어려움은 물론 정보 습득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주도의 서비스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애초에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편파적인 인정조사표를 사용하여 지원 서비스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1차적으로 시각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타 장애에 비해 등급이 낮게 판정되었으며, 이번과 같은 등급 하락 사태가 대거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 노인의 경우 노인 장기요양 급여도 받을 수 없으므로 65세가 넘는 시각장애인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현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가 많은 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한시련은 대폭 등급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인정조사표의 개선 그리고 활동지원법의 개정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등급 하락 사태와 관련한 개선, 인정조사표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파악 및 개선 검토, 8월부터 실시되는 국민연금공단 인정조사원에 대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실시 등의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단지 일회용 면피성 발언이었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더욱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는 날까지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2016 리우 패럴림픽,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난 8월 2016 리우 올림픽의 열기를 이어
9월에는 장애인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열리는데요.
패럴림픽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진 :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 동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2016 리우패럴림픽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패럴림픽에는 세계 176개국에서 모인 장애인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승마, 5인제축구, 7인제축구, 골볼, 유도 등 22개 종목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수들은 이 중에서 11개 종목(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유도, 역도, 조정, 사격, 수영, 탁구, 휠체어테니스)에 81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되는데요.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선수는 유도 6명(진송이, 서하나, 최광근, 이정민, 박종석, 이민재), 수영 1명(한동호)으로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특히 유도는 패럴림픽대회에서도 기대가 높은 종목인데요. 패럴림픽의 유도는 올림픽의 유도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패럴림픽에서 치러지는 유도인 장애인유도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의 각 유형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시각장애 유도 부문에서만 정식종목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유도에서 시각장애는 3등급(B1, B2, B3)으로 나뉘는데, 경기는 등급을 통합해 체급별로 치르게 됩니다.

B1등급의 경우에는 빛을 전혀 감지할 수 없으며 빛을 감지한다 해도 어느 방향 어떤 거리에서도 손의 형태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깨선 15cm 아래에 7cm의 붉은 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유도의 경기 진행은 국제유도연맹이 규정한 장애인유도의 변형규칙을 사용하며 이외에도 중복장애(시각 및 청각)일 경우를 위한 별도의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종목은 한동호 선수가 참가하는 수영인데요. 패럴림픽의 수영은 일반 수영 경기의 규칙을 변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참가 가능한 종목인 수영은 장애 유형별로 별도로 정한 규칙 이외에는 국제수영연맹의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선수들의 수영 경기에는 '태핑(tapping)'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선수들이 결승점이나 반환점에 도달하기 전에 선수의 신체 일부를 톡 건드려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태핑을 해주는 태퍼는 선수와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소속팀의 감독이나 코치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하진 않지만 시각장애인이 참가 가능한 종목으로는 5인제 축구와 소리 나는 공을 상대의 골대에 넣어 많이 득점한 쪽이 이기는 골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월에 치러지는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순위 12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춤으로 세상을 느끼다. 시각장애인 무용수 유창호 님

수많은 동작으로 나를 표현하는 춤,
춤과 사랑에 빠진 청년,
유창호 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춤을 추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지만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특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이 춤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춤과 노래를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본래 관심사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방송과 관련해 이것저것 도전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 때는 춤 동아리에 들어가기도 했고, 댄스

스포츠, 장애인 문화예술대회 참가 등 여러 가지 활동에 도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춤과 함께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춤을 배운다고 하면, 눈으로 춤을 보고 그것을 따라한다고 생각할텐데요. 유창호님은 새로운 안무를 배우거나 창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저시력이기 때문에 큰 동작의 맥락은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동작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강사님들은 새로운 것을 알려주실 때 동작을 정지한 채로 자세를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제가 취해야 하는 세세한 동작들은 강사님께서 직접 자세를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현재 ‘춤추는 헬렌켈러’라는 기업에서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춤추는 헬렌켈러’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춤추는 헬렌켈러’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호흡명상춤을 통해 활동을 도모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호흡명상춤은 ‘춤추는 헬렌켈러’에서 처음 만든 것인데 장애인들이 음악을 느끼며 그 음악을 호흡과 명상과 함께 춤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용수로 활동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시각장애인 무용수이면서도 이 직업을 주업으로 삼기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또 공연이 보통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연이 있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연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습 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춤 이외에 다른 취미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춤을 추다보니 노래는 뭘해야 뭘 수 없는 것이 되었죠. 또 다른 취미로는 요리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고 비슷하게나마 만들어보려고 시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소소한 즐거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현재 지역 골볼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선수는 아니지만 대회가 있을 때 종종 참여하곤 합니다.

앞으로 유창호님처럼 무용수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 꼭 크고 거창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재미를 찾으면 그것으로도 받은 성공한 것이니까요. 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무용수라는 분야가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다보면 분명히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텐데, 정보를 많이 탐색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내 꿈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거스 히딩크 재단과 함께하는 인터뷰 현장을 소개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던 문구인데요.

장애인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거스히딩크 재단의 인터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스 히딩크 재단은 2007년, 거스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에 있던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면서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축구를 사랑하지만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유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강변cgv의 화면해설 영화 '부산행'의 상영 현장에서 거스 히딩크 재단의 대학생 기자단 1기의 첫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모두 8명으로 구성된 1기 기자단은 화면해설 영화를 보기 위해 방문한 시·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꿈이 무엇인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진행된 인터뷰의 주인공은 시각장애인 김필우 씨와 김준범 씨였는데요. 대학생 기자단은 두 분에게 축구 경기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지,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불편했던 점, 거스 히딩크 재단에 바라는 점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거스 히딩크 재단의 대학생 기자단은 “두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축구장에 방문해 축구 경기를 관람할 경우 현장 해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겪는 관람의 어려움과 시각장애인이 주로 즐기는 스포츠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거스 히딩크 재단은 대학생 기자단과 함께 12월 말까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거스 히딩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인종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꿈을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통해 거스 히딩크 재단이 앞으로 꾸려나갈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꼭숨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김한봉(시각1급_경기도 광명시)

지난해 미국으로 시집 간 큰놈이 초등 1학년 때의 일이니까, 무척 오래 된 이야기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집에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큰놈이 문밖에 서서 들어오지 않고 서 있었다. 얼른 들어오라고 손짓을 보내는데 쭈뼛거리는 폼이 나를 나오라는 신호 같아 마당으로 나갔다. 그러자 열린 대문 사이로 뺨뾰 고개를 들이미는 것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이제 막 젖을 땀 것 같은 강아지가 우리 애 옆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다.

“뭘냐?”

“응, 아빠 애가 있잖아, 저기서부터 따라왔다!”

“뭘? 저기 어디?”

“응, 학교”

“학교?”

“응, 학교 앞에 오는데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날 따라 오잖아. 오지 말래도 자꾸 따라와서 그냥 같이 왔어.”

잠시 망설이다 일단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결국 내가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한 식구가 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의 내력으로 볼 때 동물은 사람과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상식이었다. 그래서 키우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마당에서만 키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녀석이 들어 온 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우선 자기들끼리 매사에 다투던 애들의 버릇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애들의 칭얼거림이 눈에 띄게 없어진 것이다. 특히 둘째의 칭얼거림은 매번 나의 인내심을 한계점에 이르도록 했는데 강아지가 온 이후 자기들끼리 서로 밥을 챙기고 화장실을 챙기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났다. 어디를 한 번 가려해도 이 녀석의 식사가 먼저 문제가 되었고, 이 녀석의 잠자리가 잘 챙겨지는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단 1박 2일이라도 갈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어안이 병병하여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녀석의 이름은 ‘꼭숨이’

어디를 그리 빨빨대고 다니는지 도대체 찾기가 쉽지 않다고 꼭꼭 잘도 숨는다는 뜻이란다. 애들이라 이름 짓는 것도 순수하기만 하다. 나야 애들만 좋다면 괜찮다는 입장이나 그래도 거리가 좀 느껴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동안은 애들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지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참기 힘든 상황이 종종 생겼다. 집안 곳곳이 강아지 털로 도배가 되더니 심지어 밥 먹는 밥상에 까지 개털이 날렸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애들과 마누라는 좋아 죽는단다.

당시의 우리 가족은 아버님께서 너무도 황망히 떠나셨기에 우울해 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살던 집을 급히 처분하고 어머님 봉양을 빌미로 부모님 댁에 위탁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 집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공되기도 했지만 오래 되어 사방이 물이 썩고, 참다 못 해 내가 업자를 불러 옥상 방수를 했다. 그런데 그놈의 방수업자가 일을 마쳤으면 쓰레기도 함께 처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 녀석이 그만 통에 남아있던 약품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셨던 것이다.

꼭숨이는 그렇게 며칠을 고통 속에 보내더니 그렇게 우리 곁을 소리 없이 떠났다. 애들은 그 녀석과 몇 년을 같이 커와서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꼈던 것 같다. 그런 고로 그녀석의 사망은 애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세 녀석이 모두 폐니 상태였지만 나는 좀 달랐다. 당시에는 그 녀석이 부주의로 인한 약품으로 죽음을 맞은 것이 조금은 애석했고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그저 동물 하나가 우리 곁을 훌쩍 떠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녀석의 장례문제로 나는 또 다시 애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전쟁을 하다 내 생각이 조금 흔들렸다. 그래도 귀한 우리 애들의 정서 함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녀석인데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녀석의 장사를 결정하면서 그 녀석에게 너무도 고마워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다. 깨닫고 나니 애들과의 전쟁이고 뭐고 일말의 속죄의 마음이 나를 울적하게 했다. 근처 동물 병원이나 인터넷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상당한 비용을 요구했다. 그깟 비용 얼마나 되나 싶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녀석이 물을 대단히 좋아했던 기억에 집 근처 개울가 양치 바른 곳을 찾아 물어 주었다.

그렇게 꼭숨이와 우리 가족의 단란했던 추억은 끝이 났다.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페이스북’ 사진!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사진 내용을 분석해 읽어주는 것인데요. ‘자동 대체 텍스트(automatic alternative text, AAT)’로 이름 붙여진 이 기능은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켜고 화면을 스크롤하면 “야외에서 웃고 있는 사람 세 명”과 같이 음성으로 사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애플iOS용 영어 서비스로 이 기술을 도입한 상태이며 앞으로 안드로이드 등 다른 플랫폼들과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인터페이스 엔지니어링 분야 접근성 전문가 시각장애인 맷 킹은 “시각장애인들에게 AAT를 통해 정확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 기능이 시각장애인이 페이스북을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안구은행, 한국시각장애인 위해 각막 공급에 적극 협조하기로

미국의 안구은행인 ‘에버사이트(Eversight)’가 한국의 시각장애인 들을 위해 각막 공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한 장기기증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에버사이트’는 미국 동부 지역에 5개 지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안구은행 중 하나인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각막이식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약 2,000명에 달하지만 각막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은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에버사이트’는 “이를 계기로 각막 이식이 필요한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강원도의 바다를 느끼다, 수상레저!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수상레저 교실이 열렸습니다. 8월 19일에는 강원도 철원군의 한탄강에서 래프팅 교실이 진행되었는데요. 탑승 전 페달링 교육을 받고 안전을 위해 헬멧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2시간 동안 한탄강의 급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8월 22일부터 23일에는 강원도 고성군의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실이 진행되었는데요. 강사와 참가자는 일대일로 짝을 이뤄 바다를 체험하였습니다. 바다 속에 들어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생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수중에서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마창업훈련, 피부미용훈련 수료식 열려

지난 8월 31일 제31기 안마창업훈련생들과 제3기 피부미용훈련생들이 직업훈련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료하게 된 훈련생은 안마창업훈련 9명, 피부미용훈련 6명 총 15명이었는데, 두 과정은 모두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안마창업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안마사 진출 및 안마원 창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피부미용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피부미용사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료생들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취업관련 내용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02-950-0122)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의 활기찬 사회 진출을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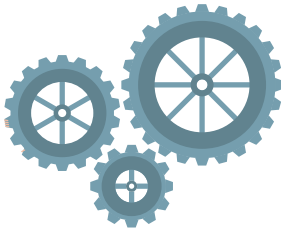


제6회 시각장애인복지시설 직원연수 개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비체펠리스에서 제6회 시각장애인복지시설 직원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직원연수는 전국 17개 기관에서 160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였는데요, ‘조직의 시너지를 만드는 30분 회의’를 주제로 한 특강과 분과별 토의 및 친교의 밤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재활, 레포츠, 점자도서관, 정보화교육, 지역사회복지, 직업재활, 총무기획, 활동보조의 총 8개의 분과로 나뉘어 구성되었던 분과별 토의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가 전국의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직원들과 상호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색송편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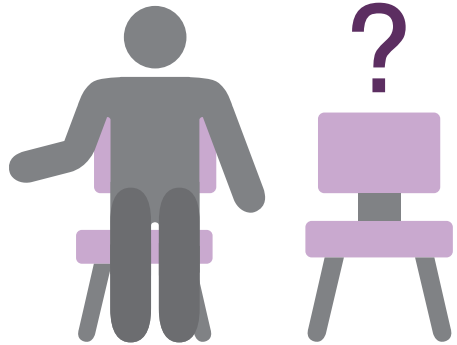
9월 3일 토요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원데이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원데이교실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시각장애인과 그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단호박, 흑미, 블루베리, 썩 등으로 알록달록 반달모양 송편을 빚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송편을 빚고, 빚은 송편을 맛보며 서로 답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안내할 때 아니면 회의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을까요?” 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자리를 떠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말없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실례가 됩니다. 누구나 허공에 대고 이야기 하게 되면 당황스러울테니까요. 만약 자리를 비우는 당사자가 말없이 일어섰다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변사람들이라도 주위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